

2025-1호 통권40호

여럿이 함께



www.dolbom2014.or.kr



돌봄사랑채

독립주거를 위한 돌봄공동체

새로운 삶을 개척하는 선구적 공동체

여럿이 함께 살아가는 회복공동체

목차

- 연말 당사자 아차산 등반
- 신규직원 (허필화선생님) 소개
- 2025년 설 명절 행사
- 영화 '검은 수녀들' 감상후기
- 설연휴 귀가 미션 발표
- '루미나리에 축제' 관람 후기
- 2025년 당사자 회복 목표 발표
- 상반기 특별여행(공주) 준비 모임
- 1분기 요리조리 레시피
- 1분기 요리조리 만찬
- 조0원님 퇴소 후기
- 돌봄사랑채를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료들과 아차산 등반

- 조지원 기자 -

12월 28일(토)에 시설장님과 이O숙, 남O옥, 조O원 회원들이 함께 아차산 등반을 하였다. 추운 날씨였지만 등반을 하다보니 활기도 느낄 수 있었고, 올라가다 보니 어느새 아차산 정상까지 올라가게 되었다. 아차산 정상에 오르니 서울시가 한눈에 들어오고, 시원한 풍경을 바라보며 사진도 촬영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날씨도 청명하고 맑았고 상쾌한 바람을 맞으며 유유히 흐르는 한강을 배경으로 회원들과 서울의 변화에 대한 담소도 나누었다. 정상에서 내려오는 길에 고구려정을 방문하여 고구려정의 역사를 돌아보기도 하였다. 돌아오는 길에 직접 두부를 만들어 판매하는 손두부 전골집에서 손두부 전골을 먹으면서 추운 몸을 녹였다. 오르기 전에는 고구려정까지 등반하는 것이었는데 열심히 등반하다 보니 정상까지 오르게 되어 성취감도 느낄 수 있었고, 겨울 추위 속에 등반한 경험이 또 하나의 추억이 되었다.



새로운 직원 소개(허필화 선생님) -김미선 기자-



현재 살고 있는 곳은?

저는 노원구에 거주하며 지하철을 한 번
갈아타야 하지만 그다지 멀지 않아
출퇴근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정신건강간호사로서의 경력은?

저는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서울 소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장애인들의
사회통합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치료 연계 등의 활동을 해왔으며, 그 외에도
일반 지역주민들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했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각 자치구마다 하나씩 존재하며 누구나 방문하여 상담 및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비영리 공공기관입니다. 계약 종료로 센터에서 퇴사
한 후 좀 더 집중적으로 대상자들의 회복을 돕고자
돌봄사랑채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돌봄사랑채에 오셔서 어떤 마음으로 임할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오시는 분들은 주로 치료유지와 재발 방지, 재활을
목표로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돌봄사랑채 회원분들은 자립과 독립
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훈련을 위해 입소한 분들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는 일상생활과 사회기술 훈련뿐 아니라 독립을 위한
주거 및 재정관리도 잘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각자 주체성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저는 조력자의 역할을 할 것이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2025년 설 명절 행사

-최은혜 기자-

2025년 1월 25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02호 공동체실에서 우리는 설 연휴 행사로, 돌아가면서 노래 1곡씩 불렀다. 오전 10시부터 굴전, 갈비찜, 떡국, 각종 과일, 떡 등을 준비하여, 1시부터 다함께 점심식사를 했고,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진 후 오후 2시부터 장기 자랑 시간을 가졌다.

각자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 소개해보겠다. 박O하님은 등대지기, 이O숙님은 짝사랑, 장O정님은 꿈, 시설장님은 아마추어, 홍O례님은 안동역에서, 김O수님은 You Raise Me Up, 신O영님은 유포리아, 정O희님은 설날동요, 김미선님은 잊지 말아요, 최O영님은 태양을 피하는 방법 등을 불렀다.

모두 자발적으로 한 곡씩 노래하여 매우 질서정연했으며, 사회는 이날 요리조리 만찬 “떡국”을 맡아서 한 최O영님이 했다. 이번 설 행사는 작년 행사(새천년체조, 제기차기, 훌라후프 돌리기 등)보다 간단했던 편이었다. 우리는 대부분 평소에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아 모든 사람 앞에서 노래 부르는 것이 어색할 줄 알았는데 모두 잘 참여하여 의미가 있었다. 내년에는 어떤 설 행사를 하게 될지 기대된다. 율놀이와 같은 다양한 게임도 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



“검은 수녀들” 영화 감상

-김미선 기자-



돌봄회원 김O선과 황O숙은 1월 26일 일요일 설 연휴 때 건대 롯데시네마에서 송혜교 주연의 <검은 수녀들>을 들뜬 마음에 기대를 많이 하며 보기 시작했다. 우리 둘 다 천주교 신자여서 제목만으로도 보고 싶어졌다. 난 가끔 영화 보다가 졸 때가 있는데, 이 영화는 재미있었다.

시작부터 영화는 꽤나 강렬하다. 신부와 수녀의 구마 의식에도 검은 기운을 드러내는 악령의 존재감, 기세가 기울었다는 생각이 들 즈음에 유니아(송혜교) 수녀가 등장한다. 성수가 든 드럼통을 들고 또각또각 걸어오며 악령의 기운을 없애려 하는데...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누구보다 간절한 그녀이다. 그러나 담배도 피우는 유니아를 보면서 싫기도 했다. 악령을 제대로 퇴치하지 않으면 아이가 죽을 것이 뻔히 보이기에 가만히 멈춰서 기다릴 수 없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시작된 유니아의 금기를 넘어선 행동들은 관객들의 마음을 설득 시킨다. 뭐든 다해봐서 살릴 수만 있다면 무조건 직진이라는 확고한 신념이 크게 다가오기도 한다. 가톨릭의 구마 의식, 한국무속 신앙, 서양의 타로까지 다양한 요소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다. 인간에게 악령이 들어가서 말하고 행동하는데 그 얼굴은 검은 심줄이 모두 보이며 목소리는 어두웠다. 문우진의 악령 연기 또한 볼 만했다. 신인인 것 같은데 정말 잘했다. 미카엘라 수녀는 유니아 수녀와 같이 동행하며 그 악령을 물리치려고 힘을 쏟는 인물이다.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 악령을 물리치려고 극에 다 달았을 때! 자궁암에 걸린 유니아수녀에게 그 악령이 들어가는데 어차피 죽을 운명, 그 악령을 내 배에 넣어서 함께 불구덩이로 들어가며 죽는 안타까운 결말을 남겼다.

설연휴를 가족들과 함께

- 이희승 기자 -

2025년 청뱀띠 해인 을사년 새해 벽두부터 돌봄사랑채에서는 새로운 계획이 시작되었다. 이번 설에도 가족과 함께 혹은 자신만의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돌봄사랑채에서는 이번 설 연휴를 가족귀가주로 정해 회원들에게 가족과함께 하는 미션을 주었다. 가족귀가주는 한 달에 한 차례 가족과 지내는 일종의 가족 만남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귀가하지 않는 회원들은 시설에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또한 2월 가족귀가주에는 음력 정월이 포함되어 있어 특별한 미션이 수행되었다.

회원들은 설날 가족과 함께 조상의 무덤을 찾아 성묘도 하고 떡국을 해서 서로 나눠 먹는다. 그리고 각자 계획한 가족귀가주 미션을 실행했다. 회원들은 가족귀가주를 통하여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회복의 시간을 갖는다. 이번 가족귀가주도 각자 어떻게 보냈는지 서로 발표하면서 보람 있는 시간을 보낸 것 같아 마음이 따뜻했다.





석촌호수 루미나리에 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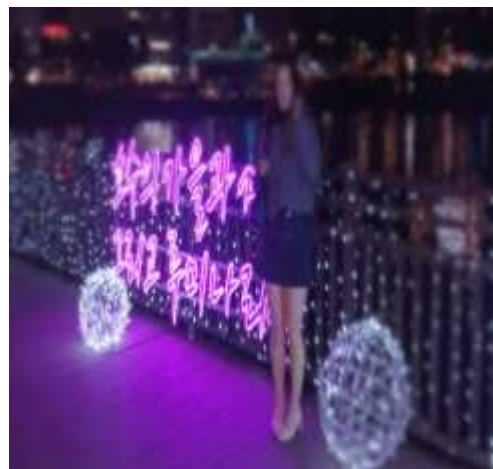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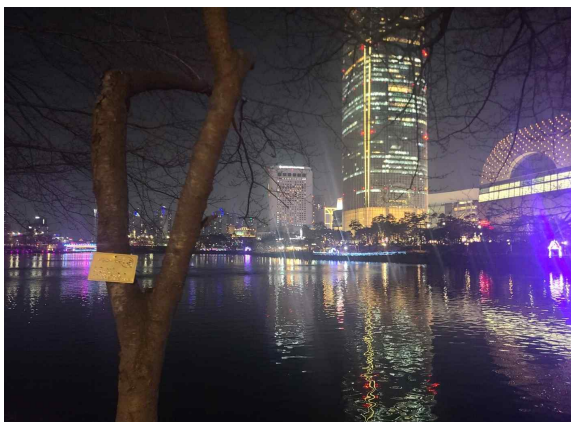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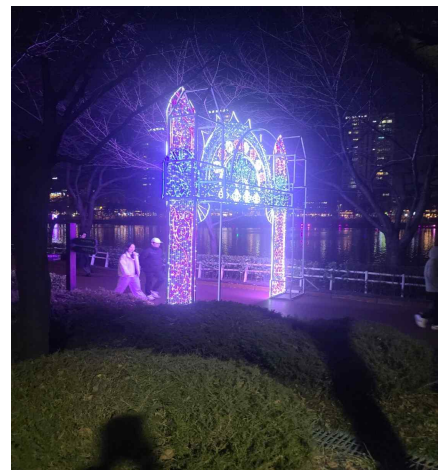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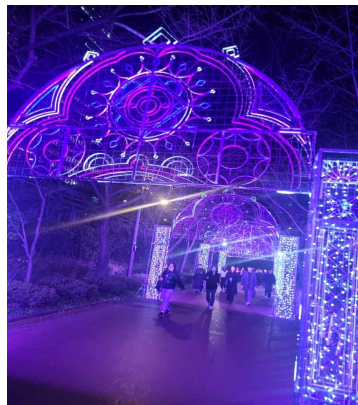


관람 후기

- 최은혜 기자 -

25년 2월 28일 오후 7시 40분에 돌봄사랑채 홍보동아리 멤버인 이O승과 최O영 석촌호수 '루미나리에 축제'를 관람하기 위해 석촌호수로 향하였다.

먼저 석촌호수 루미나리에 축제에 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석촌호수 루미나리에의 축제 주제는 'Dream, Universe&Love'이다. 석촌호수에 다양한 경관조명, 빛 조형물, 포토존을 설치하여 빛의 향연을 펼친다. 특히, '내가 꾸미는 호수'는 사전공모를 통해 선정된 'Dream, Universe&Love'를 주제로 한 메시지들이 LED등으로 다시 태어나 호수를 밝히는 조명은 주민들의 참여로 만들어졌다. 다행히 2월 28일이 축제 마지막 날이었는데 우리는 이 축제를 볼 수 있었다. 저녁 시간에도 석촌호수는 사람들로 붐비었다. 근처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가볍게 운동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무엇보다도 잠실의 야경이 매우 화려해서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서울시에서 하는 축제들에 적극적으로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서울에 살지만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다.



2025년 당사자 회복 목표 발표

- 이희승 기자 -

2025년 1월 돌봄사랑채에서는 시설장님의 지도하에 회원들의 새로운 움직임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회원들이 한 해 동안의 회복 개별 목표 계획서를 세웠기 때문이다. 2025년 1월 21일 돌봄사랑채의 전체 회원들이 공동체실에 모여 스스로 작성한 회복 개별 목표 계획서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원들은 열심히 회복 개별 목표 계획서를 작성했으며, 한 사람씩 발표가 이루어졌다. 나도 돌봄사랑채의 회원으로서 회복 개별 목표 계획서 발표에 참여하였다.

나에게 있어 회복이란 무엇인가? 회복 개별 목표 계획서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1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씩 목표를 실천해 가면서 자신이 세운 계획들을 실현해 가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는 회복을 위한 실천 목표로 '자립을 준비해 가는 과정들을 중심'으로 세웠다. 자립을 준비하기 위하여 시설에 들어온 나는 이번에 세운 실천 목표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처음 시설에 입소했을 때가 기억난다. 당시 직장이라는 곳을 다니는 것은 처음이라 훈련생이 되어 훈련을 하느라 분주한 시간을 보내야 했고 자립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지는 못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독립을 위한 준비도 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나는 회복을 위한 실천 목표를 중심으로 작은 목표들을 조금씩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

나의 회복을 위한 가장 큰 목표는 '올해 서울시 지원주택을 신청하여 선정'되는 것이다. 26년 퇴소를 앞두고 있는 나에게 있어 회복 목표인 지원주택 선정은 내 인생의 모든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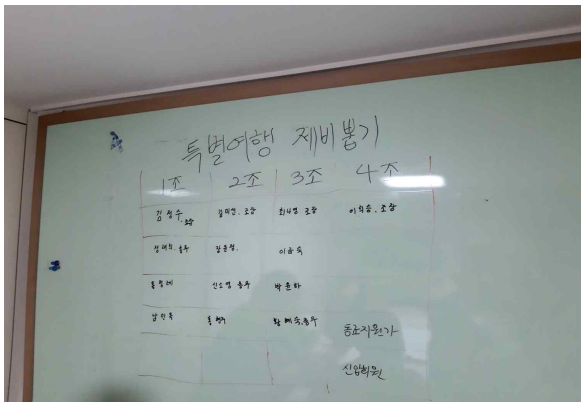
회복 개별 목표는 앞으로도 수정하면서 세우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실천 해야 한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행동을 알아차리고 목표를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는 동안 나에게 자신감이라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옆에서 애써주신 기관 시설장님과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상반기 특별여행(공주) 회의

- 김정수 기자 -

돌봄사랑채는 2025년 상반기 특별여행을 공주로 5월1일~2일(1박2일) 가기로 계획하였다. 당사자인 회원 들이 거수로 장소를 정했기에 3월 18일과 3월 25일에 특별여행에 대한 준비 회의를 했다. 먼저 회원별 4~5명씩 조를 나누면서 선배 회원들과 후배 회원들이 골고루 섞일 수 있게 했다. 처음에는 4조로 나누었는데 이후에 5개의 조로 나누어 선생님들도 함께 조원이 되었다. 3월 28일 퇴소하기로 하신 조지원님은 동료지원가로 함께 여행하기로 했다. 준비하기로 조원을 구성하였고, 각 조에서 조장과 총무를 뽑아서 각자 역할을 담당하기로 했다. 이제부터 각 조별로 여행 계획도 짜고 먼저 교통편과 여행지와 식사할 곳을 선정하기로 했다. 이번 공주 여행은 다른 때의 여행과는 다르게 조별로 여행하는 방식을 취했다. 교통, 숙소 배치, 식당 비용 관리 등을 모든 회원이 관리하고 담당을 한다. 5월 여행 당일까지 조별 모임을 통해 계획도 세우고 예산도 정하고 여행 스케줄을 만들기로 했다.



1분기 요리조리 레시피

- 황혜숙 기사 -

1월 멸치건과류볶음(황0숙)

2025.01.18.(토) 14:30~15:30

♣재료준비 : 아라촌 볶음용 지리멸치&건과류(250g), 홍고추1개, 풋고추2개, 다진마늘1큰술, 올리브오일(또는 식용유)5큰술, 양념장(설탕5큰술, 맛술7큰술, 간장2.5작은술), 마무리양념(참기름3큰술, 물엿3큰술, 통깨약간)

♣조리방법

1. 깨끗한 팬에 멸치건과류를 넣고 약간 볶는다.
2. 풋고추와 홍고추를 씻은 후 씨를 빼고 작게 썰어 준다.
3. 오목한 팬에 올리브유 또는 식용유를 두른 후 다진 마늘을 볶는다.
4. 마늘 향이 나면 고추와 멸치건과류를 넣고 멸치가 마늘오일 코팅이 입을 때까지 볶는다.
5. 볶은 멸치를 그릇에 담고, 준비한 양념장을 넣고 끓인다.
6. 양념장이 끓으면 볶은 멸치와 고추를 넣고 양념이 입을 때까지 섞는다.
7. 불을 끄고 물엿과 참기름을 넣고 버무린다.
8. 그릇에 담고 통깨를 뿌려주면 완성~!



2월 오징어초무침(조0원)

2025.02.15.(토) 14:30~16:00

♣재료준비 : 오징어 한 마리, 무1/3개, 마늘한단, 양념(고춧가루2T, 설탕2T, 참기름2T, 간장1.5T, 식초1.5T, 고추장1T, 액젓0.5T, 케첩1T, 통깨적당량)

♣조리방법

1. 오징어를 깨끗이 씻은 후 몸통을 반으로 가르고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다.
2. 후라이팬에 소주잔 하나 정도의 물을 넣고 끓인 후 잘라 놓은 오징어를 익힌다. (뚜껑을 닫아 익힌다.)
3. 마늘 한 단을 깨끗이 씻은 후 줄기 부분만 잘라 놓는다.
4. 무는 0.5mm 두께로 썰은 후 소금0.5t, 설탕2T, 식초5T를 넣어 30분 정도 절인다. (*무는 요리시작 30분 전에 미리 절여둔다.)
5. 양념 재료로 양념장을 만든다.(양념장에 무절인 물 2T을 섞는다.)
6. 준비해 둔 재료를 모두 섞고 양념장을 넣어 맛있게 무친다. 통깨를 뿌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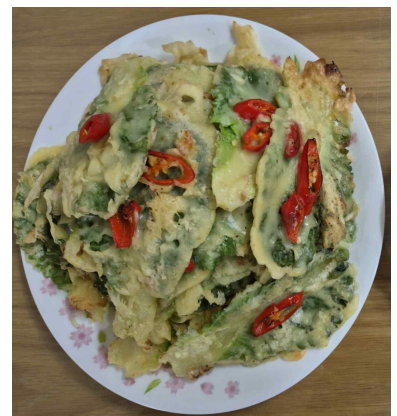
3월 봄동전(김0수)

2025.03.15.(토) 14:30~16:40

♣재료준비 : 봄동 20장, 부침가루 2컵, 건새우 약간, 홍고추, 물 2컵, 달걀 1개, 식용유 적당량, 양념간장(진간장 4T, 고춧가루 1T, 참기름 1T, 매실액 1/2T, 통깨 1/2T)

♣조리방법

1. 봄동은 크지 않은 것으로 20장을 준비해 씻어준다
2. 부침가루에 봄동을 문힌다.
3. 부침가루에 물을 1:1 비율로 넣고(2컵씩) 달걀, 다진 건새우를 섞어준 후 봄동을 넣어 문힌다
4. 팬에 식용유를 두른 후 약불에서 달아오르면 봄동을 넣고 홍고추를 어슷 썰어 올려 앞뒀면 노릇하게 부치면 완성!



요리조리 만찬

(16인분 상차림 과정 및 소감)

- 최은혜 기자 -

1월 요리조리 만찬 - 설 연휴 전 떡국

1월 25일 토요일 오후 12시 50분에 우리는 요리조리 만찬으로 떡국을 먹었다. 이에 이날 오전 10시부터 우리는 함께 갈비찜, 굴전, 굴, 사과 등 여러 음식도 402호 공동체실에 모여서 준비했다. 나는 떡국 요리를 맡아서 만들었는데, 국간장과 액젓을 적당량 넣어 간을 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초반에는 떡이 많아서 걱정이었는데 양이 푸짐하여 오히려 좋았다. 우리는 설 행사와 함께 떡국과 갈비찜, 굴전을 먹으며 명절 기분을 만끽했고, 친해진 것 같고 요리 실력에 자신감이 생겨서 뿌듯했다.



2월 요리조리 만찬 - 김밥

2월 24일 오후 6시에 우리는 요리조리 만찬으로 김밥을 먹었다. 이에 김O수님과 회원 몇 분은 오전부터 재료를 손질하며 김밥을 만들었다. 계란국도 곁들여 나와서 더욱 맛있게 먹을 수 있었다. 김밥에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가 있어서 김O수님의 요리 실력을 만끽할 수 있었다. 1인당 김밥 2줄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먹다 보니 맛있어서 다 먹을 수 있었다. 김O수님은 돌봄 회원들로부터 고맙다는 칭찬을 들었고 우리 모두 기쁘게 식사할 수 있었다.



3월 요리조리 만찬- 애슐리 뷔페 식사

3월 26일 오후 5시경 우리는 강변역에 있는 애슐리 퀸즈에서 함께 식사했다. 이 날은 이틀 뒤 퇴소하여 지원주택에 입주하게 된 조지원님과 새로 입소한 회원분들을 축하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회원들은 재밌게 대화하며 친목을 쌓으며 맛있게 식사하였다. 이날 오후 3시에 필수인 소방교육을 끝내고 참여했으며 회원들중에는 연차를 내서 함께 애슐리로 갈 수 있었다. 회원들은 봄을 만끽하며 단체 사진도 찍을 수 있었다.



조O원님 지원주택 선정 및 퇴소 후기 인터뷰

- 김정수 기자 -

1. 돌봄에 입소한지는 얼마나 되었고 돌봄 공동체의 의미는?

=> 돌봄에 입소한 지는 4년이 조금 안되는데요 올 6월이 되어야 만 4년이 돼요. 만기를 채우지 않고 퇴소하게 되었어요. 돌봄사랑채를 만난 것이 행운이었다고 생각되요. 돌봄사랑채는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일상도 무너져 있었고 대인 관계도 어려움을 겪었죠. 내가 아프다는 것만 생각하고 아무것도 스스로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삶을 포기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돌봄을 만난 이후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어요. 일상에서부터 대인 관계, 재정 관리까지 혼자 스스로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되었고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돌봄사랑채는 가족과 같은 존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돌봄에 입소해 가장 좋았던 점은 무엇이고 기억 남는 추억은 무엇인가요?

=> 저는 한국에 가족이 없어서 항상 외로웠는데 돌봄의 식구들이 생겨서 외롭지 않고 가족적인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돌봄의 행사가 있을 때나 여행을 준비할 때 회원들과 함께 회의했던 것들이 너무 좋았고 독립을 준비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순간들이 모두 새롭고 소중한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여행을 했을 때 같아요. 여행 떠나기 전에 함께 모여 준비하던 일, 여행 떠나서 같이 식사하고 좋은 곳 관광하던 일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앞으로 돌봄사랑채와 계속 연계하면서 돌봄의 행사가 있을 때 동료지원가로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3. 퇴소후 준비는 언제부터였고 지원주택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 돌봄을 입소하면서 다음 단계는 독립이라는 생각을 하였고 본격적으로 퇴소 준비를 3년 차부터 했던 것 같아요. 독립을 위한 자금도 마련하고 지원주택에 대한 정보도 알아보았어요. 처음 지원주택에 대해 알게 되었던 것은 새오름터에 있을 때 돌봄사랑채 이후에는 지원주택 이라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로 주변에서 지원주택에 들어간 동료들에게 많은 정보를 들을 수 있었어요.

4. 지원주택에 가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고 면접은 어떻게 준비했나요?

=> 지원주택에 들어가려면 우선 정신과 진료와 약물을 꾸준히 복용해야 해요. 공동생활가정이라든지 자립생활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도 유리한 것 같아요. 특히, 돌봄사랑채에서 생활하고 있다면 가산점이 높다고 들었어요. 독립 자금으로 2억까지는 괜찮다고 들었는데 갈 곳 없고 독립 자금이 많지 않은 사람이 시급성이 있으니 더 유리하겠죠. 면접은 독립을 위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일은 하고 있는지, 위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지원주택에 안 될 경우 다른 계획이 있는지 등을 물어보았던 것 같아요. 면접은 그렇게 까다롭지 않았고 편안하게 생각한 대로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5. 지원주택은 어느 지역이고 얼마나 살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 저는 금천구 시흥동이고요, 금천구를 선택한 이유는 투룸이라 선택했는데 교통이 안 좋은 편이에요. 송파구도 나왔는데 좁을 것 같아서 금천구를 선택 했어요. 지원주택은 20년까지 살 수 있고 2년마다 재계약을 한다고 해요. 재계약할 때마다 추가 보증금이 있다고 하는데 백만원 안쪽으로 낸다고 해요. 65세가 되면 평생 살 수 있게 된다고 해요.

6. 지원주택에 가는데 돌봄의 활동 및 프로그램 중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 돌봄에서 했던 활동 하나하나가 독립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해요. 그중에서도 지원주택을 위해 6개월전에 1인실로 옮겨 독립생활을 해본 것이 가장 도움이 된 것 같아요. 혼자서 모든 것을 해나가는 것을 지원주택에 가기 전에 이미 훈련받았던 것 같아요.

7. 돌봄 식구(후배)들에게 당부의 말은?

=> 여러분들도 때가 되면 독립 하실텐데 돌봄에 계시는 동안 돌봄의 활동 하나하나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돌봄사랑채는 회원 개개인의 필요에 맞춘 자립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점이 좋은것 같아요. 시설장님과 선생님들이 경험이 많으셔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계획들을 도와주실 거라 믿어요.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도 5년을 잘 보내시고 독립하셨으면 좋겠어요.



돌봄사랑채를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도움은 돌봄사랑채 운영 및 회원들의 프로그램 활동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구숙희 김모아 김미숙 김미순 김병신 김숙자 김연하 김정희 김현중 김혜진 박은자
박정미 손모아 송지영 신명진 신성희 심상운 안영미 오영미 유점순 이강순 이금숙
이기현 이미순 이숙희 이은주 이은희 이장원 이혜윤 임문섭 임영희 임희영 전보영
정종우 정혜경 지민주 최상숙 최지선 최지애 허량 황다영 황혜숙

2025년 1분기 후원금 수입 총2,325,949원 (총41명)
1분기 후원금 지출 총1,597,240원 (임차료, CMS 수수료)

돌봄사랑채 후원 신청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602-708110

* 후원금은 소득세법에 의거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1호 통권 40호
독립주거형 공동생활가정 돌봄사랑채 소식지

❖❖ 발행일	2025년 3월 31일
❖❖ 발행인	이숙희
❖❖ 발행처	사단법인 사람사랑
❖❖ 편집	돌봄사랑채 홍보동아리
❖❖ 편집장	최은혜
❖❖ 주소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26길 28, 성원하이츠 B동
❖❖ 전화	02-3409-9444
❖❖ 팩스	02-3409-9443
❖❖ 홈페이지	http://www.dolbom2014.or.kr
❖❖ 전자우편	dolbom2014@hanmail.net

이 소식지는 돌봄사랑채 홍보동아리 멤버들에 의해 제작되었으며
저작권은 독립주거형 공동생활가정 돌봄사랑채에 있으므로 무단복제를
금합니다.